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기공학은 국가산업과 국민복지의 원동력인 “전기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분야와 정보기술, 가전, 제조업 분야 등의 기반기술을 담당하는 학문분야로서 어느 시대에서나 산업, 문화, 예술에서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실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 정보혁명을 일으켜 지구촌을 하나의 정보문화권으로 만든 이른바 첨단 정보기술도 모든 분야에 전기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전기공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전기 기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은 중차대하며 성실한 책무이행이 사회로부터 엄중히 요구되는 것이다.

본 전기공학과는 이러한 사회적 명제 구현을 지향목표로 삼아,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봉사할 미래 첨단사회의 신기술인의 배출을 최우선의 목표로 정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 첨단산업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요구되는 인력은 기존의 전기공학 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기공학분야 산업의 구조에 대한 이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최첨단 응용기술의 분석과 운영 능력에 필요한 정보기술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이다.

따라서 본학과는 현재 수준높은 교수진과 최신의 실험장비를 갖추고, 광범위한 전기공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하고, 과학기술의 복잡함과 다변화에 대응하여 합리적이며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고 있다.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교육
목표**

현대산업의 첨단화, 고도화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고갈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에너지분야 및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smart화된 융합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명제 구현을 지향목표로 삼아 창의적 교육, 전문화 및 실무적 교육, 협동심 배양, 인성과 가치관 배양으로 전문기술인의 양성


**트랙
소개**

트랙	주임교수	소개
전력 및 에너지 시스템	김학만, 안덕주, 윤희신, 서재완, 우정민	미래 에너지, 환경, 자원 문제해결을 위한 전력 및 에너지 전문 분야 연구
기계 및 전력전자	김준석, 허 진, 이우찬, 최현규, 이명훈, 이동길, 강동우	모터와 구동장치, 전원장치와 전력변환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 시스템 기술 연구
반도체 및 회로설계	김준동, 윤주형	반도체 소자의 동작원리 및 전력용 반도체, 광전에너지공학, 전기에너지 변환 공학을 연구

진로

- 전력 및 에너지 시스템 : 연구개발, 연구지원, 설계엔지니어 등
- 기계 및 전력전자 : 연구개발, 연구지원, 설비엔지니어 등
- 반도체 및 회로설계 : 연구개발, 생산관리, 기술영업 등



자격증

- 전력 및 에너지 시스템 : 발송배전기술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기술사, 철도차량산업기사
- 기계 및 전력전자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 반도체 및 회로설계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응용기술사, 반도체설계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비교과 활동

- 공통 : 현장교육실습, 상시 진로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직무적성검사, 소그룹 학습지원, 기업실무자 초청특강

트랙
교과목



전력 및 에너지 시스템

기계 및 전력전자

반도체 및 회로설계

1학년

공통	전기공학개론		
선택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프로그래밍

2학년

공통	전기전자기초실험, 전기실험(1), 공학수학		
필수	회로이론,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자기학
선택	전기에너지와이노베이션 신재생에너지개론 전기에너지변환공학	응용선형대수 디지털공학개론 전자공학	응용선형대수 기초반도체공학 모빌리티임베디드시스템

3학년

공통	전기실험(2)		
필수	송배전공학, 시스템제어	전기기기, 전력전자공학	전기물성론
선택	에너지발생및응용 전기응용 디지털시스템설계	능동소자 및 DSP실습 신호및시스템 전력변환응용	인공지능개론 전력용반도체공학 디지털신호처리 아날로그RF회로

4학년

공통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필수		전기기기실험	
선택	송배전설계 전력계통공학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공학	무선에너지변환 전기기기제어론 디지털제어, 수치해석응용 현대제어 센서공학	광전기에너지공학 반도체에너지나노공학

관련 전공

전공명	에너지화학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과목명	에너지변환및저장실험 전기화학	기계설계, 자동화시스템 제어공학	반도체소자,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집적회로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전공명	전력및신재생에너지전공 전력및에너지시스템전공 전기공학해탈경전공	전력전자전공 에너지메카트로닉스전공	광전및에너지소자전공 차세대태양전지전공 나노전기소자및센서전공

취업기업

동문선배 취업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기술)공사, SK건설, 한국수력
원자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하철공사, 삼성전자, 서울도시철도
공사, KCC건설, 한국석유공사, ABB, 전기안전공사, 동부제철, LG전자, ㈜경신, 인천공항
에너지, 하이닉스, 삼성물산, KT&G, 기술직공무원, 현대건설, 포스코, 한진중공업, 린나이
코리아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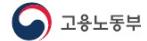
주요 진출 현황 : 워크넷

워크넷



주요 진출 현황 : 기업 및 직무

주요진출분야



- 기업체 : 각종 전기관련 제조업체, 전기공사, 통신업체, 건설회사, 전력 및 설비제조업체, 전자기기 설계 및 제조업체, 음향기기, 화상기기, 첨단 의료 장비 제조업체, 반도체, 유무선통신장비업체, 첨단의료 장비제조업체, 이동통신,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 관련업체, 전기 및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
- 정부 및 공공기관 : 전기직·전산직·전송기술직 공무원, 한국전력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진출직업

- KTX 정비원, LED연구 및 개발자, 공학계열교수, 기계공학시험원, 내선전공, 발전설비기술자, 변리사, 산업안전원, 산업전공, 송배전설비기술자, 외선 전공, 위험관리원, 인공위성개발원, 전기·가스 및 수도 관련관리자, 전기·전자시험원, 전기감리기술자, 전기계측제어기술자, 전기안전기술자, 전기 제품개발기술자, 조명기사, 지열시스템연구 및 개발자, 통신공학기술자, 통신기기기술자, 통신기술개발자, 통신망운영기술자, 통신장비기술자, 풍력발전연구 및 개발자, 동차기관차, 철도기관차 및 전동차정비원, 철도 차량공학기술자, 풍력발전연구 및 개발자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 직업진로 → 학과정보 → 전기공학

주요 진출 기업 및 직무 정보 안내

- 한국전력공사(<http://recruit.kepco.co.kr>) → 인사제도 → 직무소개
- LS그룹(<http://www.lsholdings.com>) → 채용정보 → 채용안내 → 직무 소개
- GS건설(<http://www.gsenc.com>) → 인재채용 → 직무소개
- CJ그룹(<http://recruit.cj.net/>) → 인재채용 → 직무정보
- 삼성(<https://www.samsungcareers.com/>) → 관계사 소개 → 직무 알아보기

주요 진출 현황
: 기업 및 직무

GS건설 직무소개



GS건설 직무소개 - 전력시공



[직무소개]

전력시공은 현장에서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의 업무 및 본사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현장관리와 공정관리를 통한 안전한 공사진행이며, 더불어 원가절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찰 단계에서의 시공성 검토 및 공사부문 내용 검토를 통한 입찰 지원, 수행 단계에서의 현장의 monitoring 및 본사 지원 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전력시공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노력 역시 전력 시공직군 고유의 업무입니다. 전력시공 업무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최고의 발전소 및 송전선로를 만들기 위한 기술 축적과 효율적인 현장관리 능력을 GS건설을 통하여 배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역량 및 전공/자격]

현장의 안전한 시공과 최상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자질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때때로 해결하기 난해한 문제에 봉착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피해야 할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가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많은 업체들과 인원을 통솔함에 있어 정확한 판단으로 내려진 작업지시와 이들을 끝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전소 및 송전선로(도면파악, 물량산출, 구조검토, 공정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이와 관련한 다방면의 지식은 일부 공종은 물론 전체 현장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 및 제어 관련 전공지식이 많이 필요할 것이며 관련 자격증 역시 업무를 해나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해외로 사업장이 확장됨에 따라 외국어에 대한 능력 역시 많이 요구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요 진출 현황 : NCS

NCS 직무소개



NCS 관련 직무

-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 NCS 및 학습모듈 검색 → 분야별 검색
- 19. 전기전자 → 01. 전기 → 03. 송배전설비 → 02. 송변전배전설비운영
- 19. 전기전자 → 01. 전기 → 06. 전기설비설계·감리 → 01. 전기설비설계
- 19. 전기전자 → 01. 전기 → 08. 전기자동제어 → 01. 자동제어시스템설계
- 23. 환경·에너지·안전 → 05. 에너지·자원 → 07. 신에너지 → 01. 연료 전지에너지생산

NCS 직무명 : 송변전배전설비운영

[직무정의]

송변전 배전설비 운영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점까지 수송하기 위한 설비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송변전·배전설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유지보수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직무이다.

[능력단위]

- ① 계통계획
- ② 계통운영
- ③ 송전운영
- ④ 변전운영
- ⑤ 배전운영
- ⑥ 계통보호협조
- ⑦ 송전설비 유지보수
- ⑧ 변전설비 유지보수
- ⑨ 배전설비 유지보수
- ⑩ 안전관리

NCS 직무명 : 전기설비설계

[직무정의]

전기설비설계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수전하고 부하에 적합한 전압으로 변환하여 구내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배선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전기방재설비, 정보통신설비 등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① 전기설비설계 기본계획
- ② 예비전원설비 설계
- ③ 배선설비 설계
- ④ 조명설비 설계
- ⑤ 전기방재설비 설계
- ⑥ 전기설비안전 설계
- ⑦ 정보통신설비 설계
- ⑧ 설계관련 서류 작성
- ⑨ 수변전설비 설계
- ⑩ 보호계전시스템 설계
- ⑪ 감시시스템 설계
- ⑫ 동력설비 설계
- ⑬ 특수설비 설계

주요 진출 현황
: NCS

NCS 직무명 : 자동제어시스템설계

[직무정의]

자동제어시스템 설계는 시설물 현황 사전조사, 프로세스공정 특성을 분석하여 제어성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자동 제어 기기 선정, 시공, 시설물운영, 유지정비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제어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① 제어설계 타당성 조사
- ② 제어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 ③ 자동화 기본계획서 작성
- ④ 제어설계 규정 검토
- ⑤ 제어설계 기준서 작성
- ⑥ 제어반 설계
- ⑦ 공정제어 설계
- ⑧ 공정배관계장도 작성
- ⑨ 구동장치 선정
- ⑩ 제어기기 선정
- ⑪ 현장기기 선정
- ⑫ 제어공사 설계도서 작성
- ⑬ 제어설비 운전조작서 작성

NCS 직무명 : 연료전기에너지생산

[직무정의]

연료전지에너지생산이란 수소를 포함한 연료와 연료전지를 활용하여 고효율의 전기와 열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 제작, 설치, 운영, 유지보수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① 연료전지발전사업 타당성 분석
- ② 연료전지발전사업 계획 수립
- ③ 연료전지발전설비용 인프라 설계
- ④ 연료전지발전사업 인허가 검토
- ⑤ 연료전지발전소 기반 공사
- ⑥ 연료전지발전설비 설치
- ⑦ 연료전지발전설비 운영
- ⑧ 연료전지발전설비 유지보수
- ⑨ 연료전지발전설비 안전관리
- ⑩ 연료전지 연료공급계통 제작
- ⑪ 건물용 연료전지 스택 제작
- ⑫ 연료전지 주변장치 제작
- ⑬ 연료전지 주변장치 제작
- ⑭ 연료전지시스템 시험인증
- ⑮ 연료전지 계통연계장치 제작
- ⑯ 연료전지발전설비 감리



취업성공 수기

전기공학과 백○○ - 설비기술 분야

SAMSUNG

■ 합격정보

- 기업명 : 삼성전자
- 졸업년월 : 2021년 02월
- 입사년월 : 2022년 08월

■ 기본 인적사항

- 평균학점 : 3.93
- 영어회화점수 : OPIC IM1
- 자격증 : 전기기사, 한국사
- 취업시 연령 : 29세
- 인턴십 : 정유사(1개월), 가전제조사(8개월), 반도체장비사(정규직 2개월)
- 수상경험 :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2위
- 동아리 : 탁구, 스피치 동아리

■ 취업 준비 과정

저의 경우는 명확한 진로설정이 없이 시작하여 막무가내로 준비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4학년 때 전기기사, 영어, 2번의 인턴십 등을 취득 및 경험을 쌓아나갔습니다. 취준생들이 보기엔 관참은 스펙과 경험일지는 몰라도, 면접관의 관점으로는 중구난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앞선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같이 면접까지 올라온 지원자들을 보고 있으니 저에게서 직무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21년 하반기부터 두 가지의 직무로 압축시켰습니다. 건설사(전기시공)과 설비기술 직무로 압축하여 더 심화된 공부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부하였고, 반도체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번 탈락의 겪은 후, 직무 경험부터 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반도체 장비사에 우선 취직하였고 3개월 미만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실제 면접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하여 면접 과정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 취업성공 원인분석

·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

취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다수 분들이 대기업을 향해 도전 중이거나 도전할 계획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대기업 취업시장은 중고신입도 매우 많고, 생 신입분들 중에서도 해당 직무에 대해 경험을 쌓기 위해 과거부터 노력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입인데 경험이 어딴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취업성공 후기



[주요평가요소]

- 직무 적합성 : 수강교과목, 자격증, 직무 관련 교육 및 경험(일경험) 등
- 조직 적합성 : 인성 및 태도, 기업 인대상 및 핵심가치 적합여부, 미래비전 등
- 직무역량이 중요시되는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역량, 그 역량의 근거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필수

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시장에 나가보면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분들이 승률이 높습니다. 인턴이나, 중소, 중견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부시절부터 꾸준히 해당 산업과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직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현재 취업시장에서 지원 직무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량적인 스펙(영어, 자격증 등)보다 지원 직무에 대한 경험을 유사경험이 더 경쟁력 있는 스펙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반도체 장비사에서 직무경험을 2개월 쌓은 후 삼성전자에 도전했을 때 직무 이해도와 전공 적합성 등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잘 설득하여 합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서류 후기 및 작성 Tip

기업마다 서류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여 서류를 쓰며 느꼈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턴 도중 채용계획을 변경하여 채용 불발이 되어 취업준비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1년 2월 졸업 후 3월 중순이 돼서야 처음으로 자소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서류를 써보자니 무엇을 써야 할지,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판단이 안 났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그 당시 자소서를 보면 헛웃음이 납니다.) 따라서 경험정리를 먼저하고 이후에 여러 개의 안을 준비하여 선배나, 취업원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SK 그룹사의 자소서를 기반으로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 취준하시는 분들은 자소서를 무조건 많이 써 보십시오. 무엇이든 첫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오늘 써놓은 자소서가 내일 보면 '왜 이렇게 썼을까' 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또한, 옛날에 잘 썼다고 생각한 자소서를 다음에 열어보게 된다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결국, 자소서는 쓸수록 매끄러워지고, 자신의 관점과 눈높이도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또한 자소서에서 추상적인 언어와 애매한 경험을 적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면접관들이 자소서를 읽지 않고 면접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소서를 훑게 되고 눈에 띄는 단어를 기반으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추상적으로 적게 되면 자소서에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수치를 기반으로 객관적 사실과 그 사건으로 인해 본인의 성취도와 습득 스킬, 이것을 해당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하시고 주제선정 및 글을 써내려가길 추천 드립니다.

취업성공 시기



[주요평가요소]

- 많은 기업들이 자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면서 서류전형 이후 인적성의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음
- 사기업 : 수리논리, 추리 등의 영역을 기반으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리력과 사고능력을 평가(GSAT 기준)
- 공기업 : NCS 직업기초능력(10개 영역) 평가 기반으로 시험이 구성되며, 공기업마다 채택하는 영역의 수는 다르지만, 주로 6개 영역(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 조직이해&정보능력)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음



■ 인적성 후기 및 준비 과정

시험은 크게 인적성의 대표적인 GSAT와 최근 많은 기업에서 채택 중인 시검사 후기입니다.

· GSAT

- 2019년 코로나 발생으로 GSAT의 전형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기존 4과목에서 수리, 추리 2과목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무마다 다르지만 커트라인 자체도 낮아졌습니다. 설비기술 기준으로 수리 12~15개 추리 22~25개 이내로 맞출다면 넉넉하게 통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부방법으로 추천하는 것은 기본서를 풀어본 후 인터넷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이용하여 한 번에 동일 유형을 20~30문제씩 풀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모의고사와 달리 짧은 시간 내 같은 유형을 많이 풀게 되면 본인만의 노하우와 문제점, 약점을 훨씬 빠르게 잡아내고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봉투 모의고사를 풀 차례입니다. 다 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면 하루에 2~3세트만 풀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GSAT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세트를 풀더라도 맑은 정신 아래에서 풀게 된다면 효율과 자신감 둘 다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GSAT는 본인의 컴퓨터 앞에서, 즉 통제된 환경에서 풀기 때문에 모의시험을 볼 때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시검사

- Gsat와 비슷하게 유형의 익숙해짐과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여러개의 게임과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기에 맑은 머리로 익숙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플로 하루라도 유형을 익히고 시험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게임은 상관없다는 영상들을 몇 개 보았는데, 게임으로 판단을 전혀 안한다면 게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시역량검사를 딱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는데, 컨디션이 나쁜 상태로 제대로 게임을 못 풀었을 때였습니다. 나름의 시험이기 때문에 잘 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는 음성인식으로 답변을 읽어내는데, 자기소개, 지원동기, 장단점 등 고정 질문이 있음으로 스크립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성공 후기



[주요평가요소]

- 보편적으로 기업은 2단계 면접으로 진행
 - 1차 면접 : 직무면접, 실무진 면접
 - 2차 면접 : 인성면접, 임원면접
- 기업/직무에 따라 PT면접, 토론 면접, 롤플레이, 영어면접 등을 진행
- BE(경험)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경험을 토대로 꼼꼼히 검증하고 보유 역량을 판단하는 면접유형이 확대, 자신의 행동을 중심으로 구체적 과정과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



면접 후기 및 준비 과정

· 삼성전자

- 직무 : 직무는 대부분 전공에 기반을 둔 지식을 물어봅니다. 삼성전자는 전공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원 가능한 직무들이 많기에 전공에 대해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교 시절 전공의 기초, 기본 법칙, 이론 등을 질문이 많았습니다. 전공자로서는 정말 기초적일 수 있지만, 아는 것일지라도 긴장된 상황 속에선 생각이 굳기도, 아는데 명확히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위가 넓으므로 평소에 예상 리스트를 만들어 대답하는 준비를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임원 : 이직사유를 대부분 여쭙보시면서 전기 전공자로서 설비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직무 이해도) 등을 여쭙보셨습니다. 지원 사업부(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연구소 등)의 지원 동기, 직무 지원동기 등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또한 특이사항(이력, 첫인상, 체격 등) 예를 들어 유약한 이미지, 내성적인 첫 인상일 경우에는 성격에 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는데, 본인의 평소 이미지가 그렇다면 경험에 기반으로 잘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수많은 면접을 보며 느낀 것을 몇 가지 적어보자 합니다.

- 첫 번째는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지원자의 이력사항과 1분 자기소개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가장 지원자에게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듣기 좋은 말, 꾸며진 말을 하기보다, 면접관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직무, 이력 관련)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1분 자기소개는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한 줄로 요약될 것입니다.
- 두 번째는 답변을 절대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자기소개, 직무 지원 동기는 예외). '완벽하게 하면 외운티 안 나면 되지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질문자의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준비한 답변은 A인데 면접관이 물어본 것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B라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외운 사람들은 초점에 조금 벗어나지만 자신 있는 A로 외운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면접관은 속으로 '아 내가 듣고 싶은 것이라 좀 다른데 .. 답 답하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지원자라고 생각이 들 것이고, 추가적인 질문이 없거나 좋지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만 준비해놓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니다.
- 세 번째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스테디를 하다 보면 피면접자의 어투, 표정, 습관 등 비언어적, 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선입견이 생깁니다. 나쁜 선입견이 생기면 그 짧은 면접시간에 돌이키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선생님, 선배, 동기, 부모님 등에게 조언을 받거나, 부끄러울 수 있지만, 본인의 면접을 영

취업성공 후기

상을 통해 피드백해보면 더 빨리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인을 너무 포장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면접관들은 수 많은 면접자를 매해 보았고, 포장하거나 방어하려는 지원자에게 질려있습니다. 진솔하고 솔직담백한 답변을 했을 때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며 좋은 분위기로 면접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4학년 때 lpp 1년 인턴십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lpp 인턴십 기회가 된다면 관심 있게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반 사기업 인턴십 채용 난도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하지만 너무 올인하기 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최종적으로 도전할 기업과 산업에 도움이 될지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로서 '어디에 취직할 수 있고, 회사란 무엇이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경험하고자 지원하였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어떠한 산업에 가고 싶은지 사전에 고민 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무관한 산업, 직무의 인턴 1년보다 연관 있는 인턴십 2달이 훨씬 값어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랜 기간 취업준비를 하면서 이 과정이 힘들고 외롭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첫 취준 때에는 1차 면접을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하반기에는 최종전형만 10번 이상 탈락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다고 자부하고도 불합격 통보를 받으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못한 사람이냐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모의면접을 거의 100회 이상 해보면서 한 문장도 매끄럽게 답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여태 본 사람 중 최고다'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연습 또 연습했습니다. 취업은 '운'이다 라는 말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운은 10%일 뿐 90%는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원하시는 기업에 칼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합격정보

- 기업명 : 한국가스기술공사
- 졸업년월 : 2021년 02월
- 입사년월 : 2021년 08월

기본 인적사항

- 영어점수 : TOEIC 815점
- 평균학점 : 3.68
- 영어회화점수 : OPIC IM1
- 자격증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어사 2급
- 취업시 연령 : 26세
- 인턴십 : 한국전력공사 체험형인턴 3개월

취업 준비 과정

저는 2학년때 공기업이라는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고 차차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리 정보를 찾아보며, 공기업에는 가산점으로 들어가는 자격증 어학점수등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것을 따라하는지를 파악했으며 학기중 틈틈히 취득을 진행했습니다.

1.서류

1) 어학

군 전역후 바로 토익 학원에 등록하여 어학 점수 취득을 했습니다. 이때가 2학년 개강전이었었는데, 되돌아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던것 같습니다. 막상 공채시기에 어학점수가 만료되어 다시 취득한다고 공부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두번하지 마시고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점수(토익, 오픽, 한국어)는 본인이 본격적으로 공채를 지원할 때를 생각하여 적당한 시기에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영어하면 토익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토익스피킹과 오픽이라는 좋은 선택지도 있습니다. 토익은 고득점에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스피킹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취득할 수 있다는 점과 여러 공기업에서는 스피킹을 우대하여 추가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알아보셔서 좋은 선택하세요!

취업성공 후기



2) 컴활/한국사

개인적으로 공기업 취준생이라면 미리 따두어야 할 자격증으로 이 두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인데다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제일 먼저 따는것이 절대 유리합니다.

시중에 유명한 문제집 구매하셔서 반복하시면 방학기간때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고, 길게 준비하는것 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하셔서 1번에 합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 공부를 무리하게 한번에 한다거나 느슨하게 한다면 준비기간 길어지면서 돈낭비, 시간낭비 할 수 있으니 빠르게 하나씩 하는거 추천드립니다.

3)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저는 2회차안에 쌍기사를 취득하기 위해, 4학년때 강의를 최소한 듣고 기사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2,3학년때 21,20학점을 신청하였으며 중간에 계절학기 3~6학점씩 수강하면서 4학년때는 최소한만 들을 수 있게끔 미리 준비했습니다. 기사는 이해도가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과년도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했던 것이 전기기사 동차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기사는 전기기사와 필기,실기시험에서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전기기사를 취득했다면 큰 문제없이 작은 노력으로도 공사기사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쌍기사가 선택이었지만 현 공기업 취업판에서 서류전형부터 너무 과열되어있기 때문에, 전기직을 희망하신다면 꼭 쌍기사를 따시는것이 좋습니다.

2. NCS/전공

1) NCS

먼저 NCS는 총 10개 유형으로 구성되어있지만 모두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수리능력이 출제되며 추가로 다른 유형이 출제되는것은 시험보기 일주일전에 따로 준비해도 충분하지만, 위의 4가지 유형은 꾸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방법으로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위OO, 해OO, 예OO 기본서, 민OO와 고OO 기출모의고사 등을 통해 여러 문제를 접해보며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판별하는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하여 최대한 많이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공기업은 제외하곤 배점이 같기 때문에, 어렵거나 오래걸리는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하고 쉽고 간단한 문제를 많이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접해봤던 경험이 필기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2) 전공

전기직 전공시험은 전기기사 필기내용이 주 메인으로, 전력공학, 전자기학, 회로이론, 제어이론, 전기기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또한 난이도는 대부분 전기기사 수준으로 과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실제 출제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전기기사 필기 과년도 20개년을 다회독하며 준비하는게 무난하고, 남은시간에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업 기출 문제집과 산업기사, 전기직 공무원 기출 등 고난도 문제에 대비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다만, 과년도 문제중에서 출제된 것은 무조건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과년도 부터 완벽하게 공부하고 이후에 다른 문제집을 보셔야 합니다.

간혹 전자회로 등 낯선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에는 출제되는 공기업들도 몇 없는데다 공부 효율이 너무 떨어져 그냥 짝고 다른 문제를 다 맞추는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전공은 정말 하는만큼 나오는 편이라 NCS보다 조금 더 투자해서 전공에서 고득점하도록 공부하는게 필기합격에 가기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면접

저는 25살 전까지 간단한 아르바이트 면접을 제외하고는 면접 경험이 전혀 없었고, 평소 내성적인 탓에 면접에 더욱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필기를 합격하여 면접을 막 준비해야 했을 때, 첫 면접이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에 무작정 노랑진에 면접학원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 내에서 스테디, 외부에서도 스테디를 구해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 준비에는 대부분 스테디와 학원 등으로 많이들 준비하시는데, 두 가지를 모두 해본 경험자로서 학원보다는 스테디를 많이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학원은 비용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근처 지원자를 모아서 스테디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면접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면접학원에서 지원자의 전반적인 자세 및 발음 교정, 답변 요령 등을 배울 수 있지만, 스테디에서 다른 조원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는 방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기에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스테디 여러 개를 참여하는 편이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취업성공 수기



【주요평가요소】

- 직무 적합성 : 수강교과목, 자격증, 직무 관련 교육 및 경험(일경험) 등
- 조직 적합성 : 인성 및 태도, 기업 인재상 및 핵심가치 적합여부, 미래비전 등
- 직무역량이 중요시되는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역량, 그 역량의 근거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필수



【주요평가요소】

- 많은 기업들이 자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면서 서류전형 이후 인적성의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음
- 사기업 : 수리논리, 추리 등의 영역을 기반으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리력과 사고능력을 평가(GSAT 기준)
- 공기업 : NCS 직업기초능력(10개 영역) 평가 기반으로 시험이 구성되며, 공기업마다 채택하는 영역의 수는 다르지만, 주로 6개 영역(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 조직이해&정보능력)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음

☞ 서류 후기 및 작성 Tip

모든 공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게 되어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서류의 경우 자기소개서 질문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고, 답변 또한 이전에 작성한 것과 비슷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선호하는 이미지와 추진 사업 등과 연관짓는 게 좋을 때문에, 무분별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는 한번 검토하고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번 쓰다보면 익숙해져서 요령이 생기고, 취업원 침식을 통해 내용 전반을 다듬으시면 더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소서는 서류전형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면접에서 다시 꺼내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여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와도 문제없이 대답할 수 있는 한에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할 때 너무 과장하여 거짓 말로 자랑하듯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면접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면접까지 생각해서 꼭 공들여서 쓰시길 권장드려요

☞ 인적성 후기 및 준비 과정

1. 한국수자원공사

NCS는 전체적으로 지문이 길지 않고 한 지문에 두 문제씩 나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때 산인공 NCS예제와 문제, 답이 똑같이 나온 문제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공은 총 30문제로 신재생 관련 문제가 몇 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외에는 NCS와 같이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총점은 NCS 70점, 전공 30점과 자격증 가산점을 합산하여 나옵니다.

2. 한국남동발전

모든 시험 통틀어서 가장 전공이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전기 전공문제는 대부분 기사수준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으나, 전자 전공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속수무책으로 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NCS는 무난한 수준의 난이도로 기억합니다. 추가로 NCS, 전공 총점에 한국사 가점이 더해지며 1, 2급간 점수가 상이했습니다.

3. 한국철도공사

전공과 NCS를 60분에 각 25문제씩 풀어야 합니다. 출제사는 휴노였으며 NCS 지문이 시험지 한면을 차지하는 정도의 길이였습니다. 전공은 기사보다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동일출판사 전기기사 시리즈에서 풀었던 문제와 비슷한 난이도였습니다. NCS와 전공을 한 교시에 같이보게되니 시간분배가 중요했고, 저는 전공에서 풀 수 있는 문제만 최대한 풀고 나머지 문제는 과감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모두 NCS에 투자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더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한국서부발전

인성검사, NCS, 전공시험 총 3교시로 진행됩니다. 각 교시가 대략 한 시간씩 되는데다 수자원공사 시험과 같은날 동시에 응시하자니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점심 시간 이후라 잠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NCS는 한국사 문제가 포함된 약 70문제가 출제되며 비교적 짧은 지문의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공 또한 60문제정도 되며 전기기사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5. 한국공항공사

공항공사는 악명높은 행과연에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NCS 시험지를 보면 거의 떡제본으로 나올 정도로 분량이 상당하며 블록체인, 컴퓨터 보안 관련 등 지문 내용조차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중 가장 어려웠던 NCS를 꼽자면 행과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전공은 전자 전공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며 전기 전공문제는 평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수 배점은 정확하진 않으나 표준점수로 나오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NCS를 반정도 풀지 못했지만 50점 만점에 40점을 득점했습니다.

6.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서류부터 적부로 진행되는데다 티오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은 전공, NCS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NCS는 서부발전과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수가 조금 적었으며, 전공은 기사수준이었습니다. 필기 결과 발표날 의미는 없지만 예비순위를 부여해줍니다.

7.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행과연이 출제합니다. 특이한점은 가장 앞 5문제는 상식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한국사 문제 또한 조금 출제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행과연에 걸맞는 NCS 난이도였으며, 전공은 풍력과 연료전지 등 신재생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8.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유일하게 오답 감점을 합니다. 그렇기에 불확실한 문제는 찍지 않고 넘겨야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은 전기직기준 전공 15문제, NCS 40문제로 출제사는 휴노였으며 NCS 난이도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비슷했습니다. 전공은 전기설비 포함 기사 5개 과목 과년도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취업성공 후기


[주요평가요소]

- 보편적으로 기업은 2단계 면접으로 진행
 - 1차 면접 : 직무면접, 실무진 면접
 - 2차 면접 :
 - 인성면접, 임원면접
- 기업/직무에 따라 PT면접, 토론 면접, 롤플레이, 영어면접 등을 진행
- BE(경험)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경험을 토대로 꼼꼼히 검증하고 보유 역량을 판단하는 면접유형이 확대, 자신의 행동을 중심으로 구체적 과정과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

9. 한국가스기술공사

NCS는 지문은 길지 않으나 블록체인 등 어려운 소재가 나와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공은 기사 난이도와 비슷했으며, 과년도에서 보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특이사항은 인성검사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점인데 좋아하는 색, 도형을 찍으라는 문항이 몇 개 있었습니다.

10.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고에는 전공과 회사관련문제 50문항, NCS 50문항으로 출제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전공 30문항, NCS 70문항으로 출제되어 회사 지식을 전혀 몰라도 풀수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처럼 한 교시에 몰아서 시험을 보니 전공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고 NCS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난이도는 전공은 평이했으며, NCS는 내용은 어렵지 않으나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가 대부분이라 까다로웠습니다.

☞ 면접 후기 및 준비 과정
1. 코레일

코레일은 공기업 면접중에서도 가장 짧고 간단합니다. 면접은 1차로 마무리되며 총 시간은 10분 전후로 면접관 4명과 지원자 1명으로 이루어져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은 상황면접과 인성면접으로 구성되어, 지원자가 면접장에 입실하기 전에 A4 한면 분량의 상황을 미리 제시해줍니다. 일정 시간을 주고 지원자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필기가 가능하며 제한시간이 지나면 바로 반납했다가 입실할때 다시 받게 됩니다.

입실하게 되면, 먼저 1분 자기소개를 하고 면접장 밖에서 준비했던 상황에 대해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가 끝나면 면접관들은 그에 대한 짧게나마 꼬리 질문을 하고 바로 인성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자소서에 대한 내용은 묻지않고 흔히 물어보는 인성 면접 기출질문을 주로 하게 됩니다. 면접 질문이 매우 어렵진 않았지만, 시간이 짧다보니 답변에 대한 부담이 다소 있었던 면접이었습니다.

2. 한국가스기술공사

면접은 토론면접, 대다일 종합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장에 도착하면 번호순으로 6명을 잘라 조를 짜주는데, 먼저 토론면접부터 진행하여 소모양 테이블에 앉아 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주로 인터넷실명제 등 흔히 볼수 있는 사회이슈에 대한 주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토론은 면접관 개입없이 한 조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자 역할을 정하며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며 본인의 의견을 논리

있게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종합면접은 일반 면접과 크게 다른점은 없었으며, 주로 자소서 내용에 관한 질문이 나오거나 인성면접 기출 질문처럼 무난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공질문으로는 스마트그리드, 발전기 동작이론 등 무난한 내용이 나오고 매우 어려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 한국지역난방공사

준비할 것이 가장 많은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일 이전에 면접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인성검사를 해야 했으며, 면접에 사용할 PT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인바스켓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는 지원자가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면접입니다.

업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풀어보는데 준비 시간 1시간에 면접은 약 20분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인성면접에서 자기소개, 본인의 장단점 등 흔히 나오는 내용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공채 지원을 막 시작할 시기에, 취경원에서 주로 자소서 첨삭을 받아 제 자소서의 전체적인 틀, 내용 등을 교정받았습니다.

자소서도 써본 경험이 얼마 없는데다 몇몇 공기업들은 자소서 자체에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한번은 꼭 첨삭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학교 취경원에서 선생님들께 첨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취경원 홈페이지에서 시간에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상담을 신청하였고, 메일로 자소서를 보내드려 첨삭을 부탁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으로도 자소서 첨삭이 진행되었고 제가 놓쳤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첨삭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자소서 점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체험형인턴 지원 자소서를 첨삭받으며 많은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첨삭대로 제출하여 두 곳 모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규직 공채에도 자소서 비율이 높은 국가철도공단, 한국서부발전 등에도 서류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취경원에서의 첨삭이 자소서 작성요령과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경원에는 진로상담뿐만 아니라 모의면접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취업성공 수기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이번 상반기에 약 20개의 공기업에 지원하면서 많은 불합격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필기 커트라인과 크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점점 합격선에 수렴하면서 마침내 필기합격을 했었고, 막막했던 면접도 불합격을 겪으며 결국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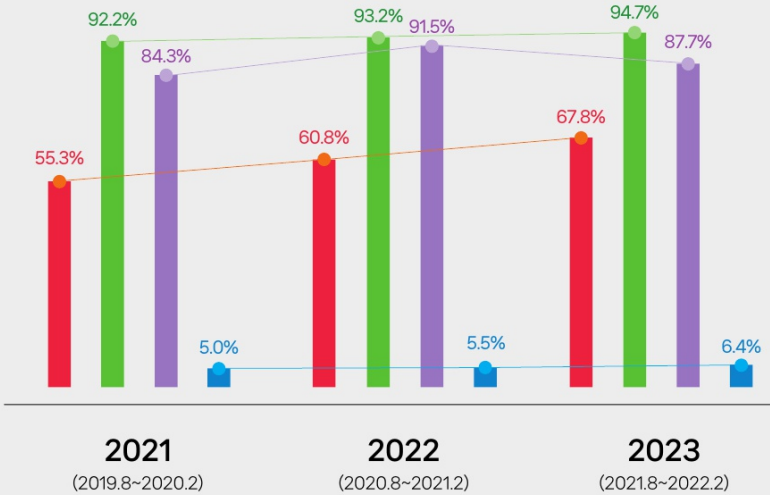
또한, 면접스터디 당시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던 조원들도 지금은 다른곳에 합격하여 잘 다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취업시장이 많이 불안하긴 해도 곳곳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최종합격까지 가는것 같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취업시장이지만 하다보면 언젠가는 합격하게 되어있습니다. 불합격에 좌절하지 마세요!



취업 및 진학현황

■ 취업률 ■ 1차 유지취업률 ■ 4차 유지취업률 ■ 진학률



연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진학자	취업률	유지취업률		진학률
						1차	4차	
2021	101명	94명	52명	5명	55.3%	92.2%	84.3%	5.0%
2022	110명	102명	62명	6명	60.8%	93.2%	91.5%	5.5%
2023	94명	87명	59명	6명	67.8%	94.7%	87.7%	6.4%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KEDI) 12. 31 공시취업률 기준 (대학 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참조)
- 기준 : 3개년 12월 31일자 공시 취업률 기준 (2021년, 2022년, 2023년)
- 취업률 산출방식 (취업자 / 취업대상자) × 100
- 진학률 산출방식 (진학자 / 졸업자) × 100

